

지역 매아리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진윤식 부이사장 공로상 수상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진윤식 부이사장이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19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린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및 정읍시가 후원해 개최됐다.

진윤식 부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즈음하여 고창지역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무장기포지와 유적지 발굴 관련 기념행사, 학술대회, 녹두대상, 녹두교실 그리고 고창동학농민군 진격로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조사 등을 통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윤식 부이사장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위대한 정신이 국가기념일 제정과 헌법전문개정에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장미화씨 27일, 정읍시민대상 특강

개그우먼 출신 행복 디자이너 장미화씨가 오는 27일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갖는다. 특강은 당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장씨는 이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시민들이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생의 행복과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강의를 들려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삶의 중심과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민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발견하는 소중한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장씨는 1994년 관동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유아교육치료학 석사과정을 전공했다. 1992년 KBS 대학 개그제로 데뷔했고, 1993년 제9회 KBS 대학 개그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행복을 디자인하는 행복 디자이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시민행복 특별강좌' 일환이다. 특별강좌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무료로 실시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서남권추모공원

추석 연휴기간 연장 운영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화장장에 한해 추석 당일 휴무

서남권 추모공원이 추석 연휴기간 연장 운영된다.

봉안당 추모시간은 현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또 봉안당 실내 제례실 2개소 외에 실외에 임시 분향소 5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다만 화장장은 추석 당일 휴무한다. 공원을 찾는 추모객 이용 편의를 위한 취지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연휴기간이 10일에 달해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원을 찾는 추모객이 예년의 2배인 1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상황 근무조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개원(11.12)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1년 10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명품 장사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간곡면 4만여㎡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광역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유족동산 등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개원에서 이날 현재까지 화장장은 총 1만236건으로 1일 평균 15건에 달한다. 또 봉안당은 2633기(1일 평균 3기), 자연장은 1303기이다.

정읍, 고창, 부안, 김제시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성공적인 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지자체 간 공동협업과 예산효율화 분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간 여러 차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개원 이후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획기적인 장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과 고창, 부안, 김제시가 공동으로 참여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서남권 주민들의 건당 화장 비용은 7만원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개원 5주년' 정읍시청 직장 어린이집 '호응'

안정적 출산·양육 환경 제공·인구 늘리기 부응 성공·모범적 운영으로 각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지난 18일 정읍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큰별 어린이집)이 개원 5주년을 맞았다.

2012년 문을 연 큰별 어린이집은 김생기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됐다.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시 산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큰별 어린이집은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영아

들의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아체육, 통합음악놀이 등 각종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을 진행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큰별 어린이집은 0세에서 13세 아동이 입소 할 수 있다.

직원들이 야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기도 하다.

관계자는 "직원들의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에 전념토록 함은 물론 적극적인 출산에도 기여해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특히 출산과 양육 정책 관련 선진사례로 평가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33명이 재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나우코스, 참뽕 젤리마스크팩 생산·공급 계약 체결

부안군 대표 특산품인 부안참뽕과 뽕잎을 활용한 젤리마스크팩이 본격 생산된다.

부안군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면에 위치한 (주)나우코스 제2공장(대표 노환선)에서 기능성 부안참뽕·뽕잎 젤리마스크팩 생산·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젤리마스크팩의 주원료인 뽕잎

염색소에는 염증치료 및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카로티노이드 등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부안군은 지난해 9월부터 나우코스와 부안참뽕·뽕잎을 활용한 젤리마스크팩 개발에 착수해 같은해 12월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안참뽕을 활용한 뽕잎비법과 뽕잎차, 그

라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생산된 젤리마스크팩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 부안참뽕 홍보와 함께 관내 미용관련 유통으로 관광객 소비촉진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빼어난 자연생태 속 역사 문화의 향기
고창 선운문화제 23일 개최

오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주최, 주관으로 '제10회 선운문화제'가 1,500년의 깊은 인연'을 주제로 문화재청, 전라북도, 고창군의 후원으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선운문화제는 사시사철 빼어난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 알리고자 시작된 산사 축제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산사의 품격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현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교구본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관조한 석씨 원류 경관을 참가자들이 직접 머리에 이고 선운사 경내를 돌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부처님에게 올리는 경관인 행사를 비롯해 선운사를 참전한 김단스님께서 당시 굿주림에 고통 받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소금에 담은

방법을 알려주어 삶을 윤곽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이 매년 선운사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소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보은행사로 열린다.

또한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장/전세원 박사)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 봉산 그리고 소프라노 김태은 등이 협연하는 제10회 선운사 산사음악회가 '음에 깊은 소금'이라는 주제로 주요인물 지휘자의 지휘로 선운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제1막 '서막', 제2막 '교화와 참회', 제3막 '평화로움 일상', 제4막 '미래! 천오백년 선운사' 총 4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산사음악회는 선운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서양의 음악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아리랑심포니 오케스트라(예술감독/강민석)의 연출로 새로운 산사 음악회의 가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소프트웨어 연계사업 아이디어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종규 부안군수 주재로 부안군수와 실과소장,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부안 새만큼 세계잡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소프트웨어 연계사업 아이디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소프트웨어사업 아이디어 보고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전 부서에서는 부서별 사전 토론회를 거쳐 1개 부서 2개 제안 이상을 발굴해 예산사업 51건, 비예산사업 33건 등 총 84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특히 보고회에 앞서 2023년 부안 새만큼 세계잡리를 반드시 성공하

는 다짐 구호를 외치며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부안군은 해당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적점성 및 시급성, 연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세계잡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모든 부서는 세계잡리 관련 사업들을 직접 챙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들과 하나가 돼 2023년 부안 새만큼 세계잡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wine bottle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It lists several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